

물리치료사의 손가락 길이 비율에 따른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정형도수물리치료분야 중심으로-

박지환¹⁾, 김호봉²⁾, 한슬기³⁾

대전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¹⁾, 제주한라대학교 물리치료과²⁾, 대전요양병원³⁾

A Study of Job Satisfaction by Finger Length Ratio of Physical Therapists : Focused on Orthopedic Manual Therapy Field

Ji-whan Park¹⁾, Ho-bong Kim²⁾, Seul-ki Han³⁾

Dept. of Physical Therapy,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¹⁾

Dept. of Physical Therapy, Cheju Halla Colleg²⁾

Daejeon Rehabilitation Center³⁾

Key Words:

Finger length ratio,
Gender role,
Job satisfaction

ABSTRACT

Background: In the present study, we examined gender roles, job satisfac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mong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ists (OMT). **Method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208 physical therapists working in the general hospital and rehabilitation in Daejeon. In order to examine the nature of the subject, we calculated the ratio of second finger length for fourth finger of predominant hand and completed the questionnaire to deter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Results:** The OMT and NOMT (non OMT) digit ratio result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5$). Digit ratio based on gender was also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p>.05$). Among the job satisfaction survey items, OM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NOMT in terms of Pride, Reflection of opinions, aptitude match, and field satisfaction ($p<.05$);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for the remaining items. Digit ratio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any of the job satisfaction items ($p>.05$). **Conclusions:** We determined that gender roles had a limited influence on selecting and continuing with orthopedic physical therapy.

I 서론

상당수의 물리치료사가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족과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업흥미'로 인해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홍명애, 2003), 이와 같은 낮은 직무만족도로 인해 물리치료사로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이형수 등, 2005). 그러므로 자신의 적성과 기질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전문분야를 선택하는데 고려되어야 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도 성역할은 중요한 관련 요인이다(조희숙, 2009). 성역할에 따른 차이는 태도와 자아가

념에 영향을 주어 전문분야 선택에 요인으로 작용하므로(Lunneborg, 1978; Harren 등, 1978), 전문분야 선택에 있어서 성역할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이옥란, 2005), 이러한 고려를 통해 전문분야를 선택하면 직무에 만족도가 더 높고 경력개발에도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이종임, 2002).

손가락 길이 비율은 태아기의 성 호르몬 노출정도를 반영하고 출생 후의 호르몬 변화나 신체발달 및 환경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성역할과 상관관계가 있다(전상원 등, 2010). 손가락 비율에 따른 성역할은 100%에 가깝거나 이상은 여성적인 성향이고 90%에 가깝거나 이하는 남성적인 성향이다(최경호와 권선옥, 2007).

정형도수물리치료(orthopedic manual therapy)는 신경근 골격계 질환, 관절기능장애 그리고 기타 연부조직

교신저자: 한슬기(대전요양병원, lovewisd@naver.com)
논문접수일: 2014.10.04, 논문수정일: 2014.11.20,
개재확정일: 2014.11.22

의 역학적인 원인으로 인해 유발된 병변에 대한 도수적 진단과 치료를 연구하는 전문분야이다(박흥기 등, 2002). 박부승(2012)은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의 진로선호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는 물리치료 전문분야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남성의 47.5%가 정형도수물리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여성은 44.0%만 정형도수물리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여,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정형도수물리치료에 관해 관심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자아개념이 인지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자신의 성역할에 맞는 직업,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 자신의 특성(성격, 흥미)에 맞는 직업의 순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범위를 좁혀나가므로 자신의 성과 반대의 성역할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정영희, 2002). 하지만 "정형도수물리치료가 어떠한 성역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반면, 여러 연구에서는 전문 분야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 성역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고(Leung, 1993; Leung과 Harmon, 1990; Hesketh 등, 1990; Holt, 1989) 개인의 성격, 능력, 성취동기 등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하였다(이길환과 김찬중, 2007). 이에 대해 Gottfredson(1996)도 타협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변하므로 성역할이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박관성(2008)도 성역할과 전문 분야선택이 관련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대전지역 종합병원과 재활전문병원 등에 근무하는 정형도수물리치료사와 비정형도수물리치료를 대상으로 성역할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두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 길이 비율을 측정하고 직무만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형도수물리치료사의 성역할 특성을 알아보고, 손가락 길이 비율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대전지역의 종합병원과 재활전문병원 등에 근무하는 현직 물리치료사 2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았다.

2. 측정방법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손가락 길이를 직접 측정하였고 설문조사는 방문전달, 자기 기입, 직접수거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작성 후 즉시, 직접 수거하여

회수율은 100%였으며, 총 208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1) 손가락 길이 비율 측정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의 길이 측정은 Manning 등(2000), Coyne 등(2007), Rammsayer와 Troche(2007)의 방법을 참고하였다. 대상자의 우세 손을(최경호와 김정완, 2007) 편 상태로 탁자 위에 올려놓도록 한 후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의 손바닥 쪽의 몸 쪽 주름(the ventral proximal crease) 중앙 지점부터 손가락 끝(finger tip) 중앙 지점까지의 최단거리를 버니어 캘리퍼(vernier calliper, 530-101, Mitutoyo Corporation, Japan)를 이용하여 .01mm까지 측정하였다(박성우 등, 2009). 본 연구의 측정자내 신뢰도는 ICC(3,1)=.953이었고 측정자 간에 신뢰도는 ICC(2,1)=.991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손가락 길이 비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Bailey와 Hurd, 2005). "Ratio of finger length(%) = length of 2D(cm)/length of 4D(cm)"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Frequency(%)			χ ²
		Total	OMT ^a (n=35)	NOMT ^b (n=173)	
Gender	Man	85 (40.9)	19 (54.3)	66 (38.2)	.91
	Woman	123 (59.1)	16 (45.7)	107 (61.9)	
Age	Under 30yrs	153 (73.6)	22 (62.9)	131 (75.7)	.14
	30~40yrs	55 (26.4)	13 (37.1)	42 (24.3)	
Career	Under 5yrs	154 (74.0)	22 (62.9)	132 (76.3)	.14
	6~10yrs	54 (26.0)	13 (37.1)	41 (23.7)	
Marital status	Single	179 (86.1)	25 (71.4)	154 (89.0)	.01
	Married	29 (13.9)	10 (28.6)	19 (10.1)	
Salary (million)	Under ₩150	37 (17.8)	4 (11.4)	33 (19.1)	.60
	₩151~200	101 (48.6)	17 (48.6)	84 (48.6)	
	₩201~250	54 (26.0)	7 (20.0)	47 (27.2)	
	₩251~300	15 (7.2)	7 (20.0)	8 (4.6)	
	Above ₩300	1 (.5)	-	1 (.6)	

^aOMT : orthopedic manual therapy field,

^bNOMT : non orthopedic manual therapy field

(2) 직무만족도 설문조사

본 연구의 직무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이미에 (2013)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로 나이, 성별, 결혼, 보수, 근무경력, 전담 분야, 우세 손에 대한 문항이 있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5 문항을 제외하여 4개의 요인을 3개의 요인으로 정하였고 10문항을 본 연구의 최종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직무만족도 측정은 리커트식 5점 척도를 사용하여 5점은 '매우 그렇다',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부여하도록 하였다. 본 설문지의 크롬바하 알파값은 .806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요인의 범주와 문항은 다음과 같았다(Table 2).

Table 2. Categories and questions of the factors

Categories	Questions
Occupation satisfaction of fields	pride and fulfillment of occupation (pride)
	conformity to current fields and aptitude (aptitude match)
	occupation satisfaction of fields (fields satisfaction)
	satisfaction of workload (workload)
Salary and stress	satisfaction of job (satisfaction)
	satisfaction of salary (salary)
	salary satisfaction compared with workload (s-workload)
Ability to work	stress caused by work (stress)
	reflection of opinions (reflection)
	development of ability (development)
	demonstration of ability (demonstration)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ver. 19.0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정형도수물리치료사와 비정형도수물리치료사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그룹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룹에 따른 손가락 길이 비율과 직무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분야별 손가락 길이 비율과 직무만족도 간에 상관관계를 각각 알아보기 위하여 스피어만의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III. 결 과

1. 손가락 길이 비율 차이

손가락 길이 비율은 전체 인원에 대해서 OMT가 NOMT보다 더 낮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p>.05),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OMT가 NOMT보다 더 낮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p>.05),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OMT가 NOMT보다 더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각 그룹별 성별에 따른 손가락 길이 비율 차이는 두 그룹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낮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table 3).

Table 3. 2D:4D difference comparison according to field and gender

	Mean±SD(unit : %)		t	p
	OMT ^a	NOMT ^b		
Total	97.69±4.42	97.92±3.88	.31	.76
Male	96.98±3.14	97.56±3.95	.59	.55
Female	98.54±6.10	98.15±3.84	-.35	.72
t	-.98	-.97		
p	.34	.33		

^aOMT: orthopedic manual therapy field

^bNOMT: non orthopedic manual therapy field

2. 그룹 간 직무만족도 차이

그룹 간 직무만족에 관한 각 항목별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의견반영(reflection), 적성일치(aptitude match), 분야만족(fields satisfaction)은 OMT가 NOMT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5).

자긍심(pride), 자기개발(development), 보수만족(salary), 업무량(workload), 능력발휘(demonstration) 항목은 OMT가 NOMT보다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업무량에 대한 적정 보수(S-workload), 스트레스(Stress)

는 OMT가 NOMT보다 낮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5$)(Table 4).

Table 4. Job satisfaction grade comparison according to field

		Mean±SD (unit: score)	t	p
Pride ^a	OMT ^b	3.80±.83	-2.00	.04
	NOMT ^c	3.49±.85		
Reflection	OMT	3.31±.76	-2.27	.02
	NOMT	2.96±.86		
Development	OMT	3.60±.95	-1.64	.10
	NOMT	3.35±.78		
Aptitude match	OMT	3.71±.99	-2.13	.03
	NOMT	3.35±.92		
Salary	OMT	2.49±.89	-.85	.40
	NOMT	2.34±.97		
Fields satisfaction	OMT	3.71±.93	-2.52	.01
	NOMT	3.31±.85		
Workload	OMT	3.34±.97	-1.84	.07
	NOMT	3.00±1.01		
S-workload	OMT	2.89±.96	.54	.59
	NOMT	2.99±1.05		
Demonstration	OMT	3.43±.92	-1.59	.11
	NOMT	3.18±.83		
Stress	OMT	2.71±1.02	1.32	.19
	NOMT	2.96±1.00		

^arefer to the table 2.

^bOMT : Orthopedic Manual Therapy field,

^cNOMT : Non Orthopedic Manual Therapy field

3. 손가락 길이 비율과 직무만족도 상관관계

각 그룹별 손가락 길이 비율과 직무만족도의 각 항목 간에 상관관계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p>.05$)(Table 5).

Table 5. 2D:4D difference and job satisfaction grade correlation

	Correlation coefficient(p-value)		
	total	OMT ^a	NOMT ^b
Pride ^c	-.02(.80)	-.04(.80)	-.01(.88)
Reflection	-.08(.24)	-.01(.93)	-.01(.19)
Development	-.03(.65)	-.04(.81)	-.04(.65)
Aptitude	-.03(.63)	.05(.76)	-.04(.60)
Salary	-.02(.76)	.05(.79)	-.04(.64)
Fields satisfaction	-.01(.90)	.13(.46)	-.04(.60)
Workload	.01(.94)	-.10(.57)	.03(.73)
S-workload	-.04(.57)	-.04(.80)	-.04(.59)
Demonstration	-.02(.82)	.04(.84)	-.02(.84)
Stress	.02(.82)	.25(.14)	-.03(.70)

^aOMT: Orthopedic Manual Therapy field,

^bNOMT: Non Orthopedic Manual Therapy field,

^crefer to the table 2.

IV. 고 찰

본 연구는 정형도수물리치료사의 성역할 유형과 직무만족도를 알아보고 성역할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수일과 조근자(2012)는 한국인 남녀 손가락 길이 비율이 남성이 96±3%, 여성이 97±3%라고 발표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손가락 길이 비율이 OMT와 NOMT 모두 여성은 98% 이상으로 전형적으로 여성적인 성향을 나타냈으나 남성도 약 97%로 여성적인 성향을 나타냈으며, 남성과 여성 간에 손가락 길이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이는 김근숙과 조근자(2012)는 연구에서 다른 분야보다 보건계열의 대학생 남성들이 여성적인 성향이 높다고 한 것을 참고하여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 물리치료사 중 여성적인 성향을 가진 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OMT와 NOMT 간에 손가락 길이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이에 대해 박은영 등(2012)도 물리치료사 남성과 여성의 전문직관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여, 물리치료사의 전문 직종에 있어 성별의 영향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손가락 길이 비율과 직무만족도 조사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p > .05$)과도 연관된 결과이다. 즉, 정형도수물리치료를 선택하여 지속하는데 있어, 성역할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직무만족이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직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선호도 즉, 얼마나 자신의 직무에 몰입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이혜은, 2008).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 조사 10개의 항목 중 자긍심 항목에서 OMT와 NOMT에서 각각 $3.80 \pm .83$ 점과 $3.49 \pm .85$ 점으로 모두 가장 높았다. 이는 물리치료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섬세하고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종(박성하 등, 2002)으로 치료과정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시간이 다른 의료기사에 비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인적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직업(박윤기, 2013)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OMT는 NOMT보다 의견반영과 분야일치 그리고 분야만족 항목에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p < .05$). 전제균(1991)은 물리치료사 직무의 중요성과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것 등을 통해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정형도수물리치료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전반적인 의료행위에 반영되므로 정형도수물리치료 분야에 대한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직무만족도는 개인의 가치실현과 삶의 질과도 관계있으며(최외숙과 이종렬 등, 2011), 선호도 비율에 차이는 있지만 물리치료학과 대학생들 중 남성과 여성 모두, 정형도수물리치료를 가장 선호하므로(박부승, 2012) 정형도수물리치료사들이 자신의 적성을 더 고려하여 분야를 선택함으로써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과 재활전문병원 등의 물리치료사만으로 한정적으로 진행되었고, 실험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중 혼인여부가 고르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어진 결과로,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정형도수물리치료사의 성역할 유형과 직무만족도를 알아보고 성역할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그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손가락 길이 비율은 OMT가 NOMT보다 더 낮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5$).

2. 각 그룹별 성별에 따른 손가락 길이 비율 차이는 두 그룹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낮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5$).
3. 그룹 간 직무만족도 조사 항목 중 자긍심, 의견반영, 적성일치, 분야만족은 OMT가 NOMT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 < .05$)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5$).
4. 각 그룹별 손가락 길이 비율과 직무만족도의 각 항목 간에 상관관계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p > .05$).

참고문헌

- 김근숙, 조근자. 보건의료 대학생의 손가락 길이비(2D:4D)와 성역할 정체감.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2;13(5):2170-2177.
- 김수일, 조근자. 한국인에서 성결정인자로서의 집게손가락과 반지손가락의 길이비. 대한체질인류학회지. 2012;25(4):137-144.
- 박관성. 한국남자대학생의 성역할과 진로타협.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박부승.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의 진로선호도에 관한 연구.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박성우, 홍창배, 안나영 등. 운동 능력 평가를 위한 2D:4D ratio와 신체구성 및 체력의 관련성. 코칭능력개발지. 2009;11(4):249-255.
- 박성하, 정한신, 최원호. 충북지역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2002;14(4):221-223.
- 박윤기, 박맹조.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1990;11(2):49-63.
- 박윤기. 물리치료사의 직업 및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정형도수치료 직무 중심으로-. 2013;19(1):21-31.
- 박은영, 김원호, 이관우. 물리치료 전문직관의 핵심가치에 대한 요인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2;13(12):5901-5908.
- 박흥기, 주무열, 신상철. 전국보건소 물리치료사들의 인식 조사.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지. 2002;8(1):15-24.
- 이길환, 김찬중. 여성 리더의 성 역할에 따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7;7(12):131-138.

- 이미애. 물리치료사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옥란.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 의사 결정 효능감 및 진로성숙도.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종임. 성 역할과 직무특성이 직무 만족과 경력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형수, 송화경, 김한나, 등. 전남 동부 지역 물리치료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 만족도 조사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2005;17(1):80-95.
- 이혜은. 치과기공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연구: 서울지역 근무자에 한하여. 중앙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전상원, 김석현, 오동훈, 등. 제2수지-제4수지 길이 비율과 기질 및 성격 특성간의 상관관계. 생물정신의학. 2010;17(3):136-144.
- 전제균. 물리치료사의 근무실태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991;3(1):9-37.
- 정영희. 흥미 유형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진로 의사결정의 타협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조희숙.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성별에 따른 취업준비활동과 취업성과의 관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최경호, 권선옥. 손가락 길이 비율(2D:4D)의 성차. 한국발육발달학회지. 2007;15(3):155-159.
- 최경호, 김정완. 손가락길이(2D:4D) 비율과 Big-5 요인간의 관련성 검토. 코칭능력개발지. 2007;9(1):197-205.
- 최외숙, 이종렬. 피부미용사의 근무환경, 스트레스, 직업만족도, 생활만족도에 관한 구조모델. 대한보건연구. 2011;37(1):109-120.
- 홍명애. 물리치료사의 인구학적 변인 및 직업흥미와 직무만족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Bailey AA, Hurd PL. Depression in men is associated with more feminine finger length ratio. *Pers Indiv Differ.* 2005;39(4):829-836.
- Coyne SM, Manning JT, Ringer L, et al. Directional asymmetry (right-left differences) in digit ratio (2D:4D) predict indirect aggression in women. *Pers Indiv Differ.* 2007;43(4):865-872.
- Gottfredson, LS.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Jossey-Bass. San Francisco. 3rd ed. 179-232, 1996.
- Harren VA, Kass RA, Tinsely EA, et al. Influence of sex role attitudes and cognitive styles on career decision making. *J Couns Psychol.* 1978;25(5):390-398.
- Hesketh B, Durant C, Pryor R. Career compromise : A test of Gottfredson's (1981) theory using a policy-capturing procedure. *J Vocat Behav.* 1990;36(1),97-108.
- Holt PA. Differential effect of status and interest in the process of compromise. *J Couns Psychol.* 1989;36(1):42-47.
- Leung SA.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 A replication study with Asian Americans. *J Couns Psychol.* 1993;40(2),188-193.
- Leung SA, Harmon LW. Individual and sex differences in the zone of acceptable alternatives. *J Couns Psychol.* 1990;37(2),153-159.
- Lunneborg PW. Sex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J Couns Psychol.* 1978;25(4):299-305.
- Manning JT, Barley L, Walton J, et al. The 2nd:4th digit ratio, sexual dimorphism, population difference, and reproductive success for sexually antagonistic genes. *Evol Hum Behav.* 2000;21(3):163-183.
- Rammsayer TH, Troche SJ. Sexual dimorphism in second-to-fourth digit ratio and its relation to gender-role orientation in males and females. *Pers Indiv Differ.* 2007;42(6):911-920.